성경읽기는 하늘로 숨통트기이다

(딤후3:13~17)

13.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14.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네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15.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16.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17.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중심으로 <성경읽기는 하늘로 숨통트기이다>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 증거 합니다.

'성경 읽기는 하늘로 숨통트기이다'

저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곧바로 대학을 못 들어갔습니다.
재수하고 삼수하고 그리고도 못 들어가서, 군대를 가고 군대를 제대하고 나서 대학을 신학대학으로 들어갔습니다.
근데, 제가 고등학교 3학년 시절 재수생 시절 삼수생 시절 때가, 정말 우리 집안의 역사상 가장~ 힘든 때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버지 사업이 완전히 문을 닫게 됩니다.
기울어가고 기울어가고 하는 것이 꽤 오래 걸리더라고요, 완전히 문 닫게 되기 전까지는.
그리고 어머니는 얼굴이 노랗게 돼서 졸도를 하십니다.
동네 돈을 다 끌어 모아다가 아버지 사업에 다 밀어 넣었는데 문을 닫게 돼버렸으니까, 어머니로서는 이거 뭐 막막한 거지요.
그래서 집을 팔았습니다, 집을 팔고 갈 데가 없으니까 그 근처 서울에, 외삼촌이 사 두신 집에 들어가서, 조카 둘을 그러니까 저한테는 사촌이지요.
외사촌 둘을 어머니께서 함께 데리고 있으면서, 그 집에 들어가서 살게 됩니다.

그 집에서 살다가 결국은, 더 있을 형편이 못 되가지고 달동네로 이사를 갔습니다.
그런데 달동네로 이사 가기 직전에, 할머니께서 중풍으로 쓰러지셨습니다.
그래서 온갖 수발을 다 해야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때가 제가 재수 삼수 할 때에요.
그러다가 군대를 가게 됐어요, 대학을 기어코 못 들어가고.

군대를 갔는데, 그때는 시험을 보지 않았거든요 카투사가.
아주 세력이 있는 권세 있는 집안의 자제들이 갈 때에, 그 사람들만 쏙쏙 뽑기가 미안하니까, 앞뒤로 있던 군번들을 같이 몇몇씩 포함시켜서 뽑았습니다.
그 중에 제가 끼어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실력으로 카투사를 들어간 게 아니라, 완전히 은혜로 들어간 겁니다.
그렇게 카투사로 간 뒤에 어머니를 처음, 어머니가 처음 면회 오셔서 하신 말씀이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승철아! 네가 카투사로 오는 바람에 온 집안에 숨통이 트였다.
그때 카투사는 지금 카투사하고 의미가 또 달라요.
79년도거든요? 지금으로부터 35년 이전입니다.
그때 대한민국의 형편은 지금과는 다른데, 미군부대 안은 완전히 미국 그 자체이고, 그것도 미국의 무슨 지저분한 동네가 아니라, 완전히 깨끗하게 정돈된 미국입니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와서 보시고는 기절하신 거예요.
그 달동네에서 중풍 걸린 할머니 수발들면서 같은 방에 지내다가, 이 막내아들이 세상에 카투사로 왔으니까, 숨통이 트일만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숨통이 트인다는 게 뭐에요?
사업도 안 됩니다, 가족이 병도 났습니다.
어머니 마음에 어느 한 구석, 그리고 큰형님은 신학대학 기숙사에 들어가 계시고, 작은형님은 군대가 계시고, 아버지는 사업이 망하셔 가지고 하루에 3천 원씩 어머니께 받아가지고 나갔다 들어오시고, 막내아들도 대학도 못 들어간 상태고, 그러다가 군대를 갔고.
이거 뭐 숨을 쉴 수가 없잖아요, 숨을 쉴 수가.
근데 카투사로 가서 3년을 지내게 된다니까 숨통이 트인 거지요.
살면서 이렇게 좀 숨통이 트여야 사는 거 아닙니까?

신앙인은 누구입니까? 숨통 트는 자에요, 숨통 트는 자.
사업도 안 되고, 건강도 안 좋고, 자식들이라고는 봐도 어느 것 하나 시원한 구석이 없습니다, 되는 일이 없어요, 되는 일이.

그러나 거뜬하게 숨을 쉬는 자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늘로 숨통을 트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땅이 어떻게 되든지 간에, 이 땅에서 내가 사자 밥이 될 지경에 처해도, 순교할 지경에 처해도 하늘로 숨을 쉬는 겁니다.
하늘의 숨통은, 스테반 집사님이 돌에 맞아 죽는 동안에 이 세상적으로 보면 사방이 꽉 막힌 상태 아닙니까? 이제 죽어야 될 상황이에요, 죽어야 될 상황이라는 게 사방이 막힌 상황 아니겠습니까? 질식해야 돼요.
그런데 뻥~ 뚫린 통로를 통해서, 하늘로 숨통을 트시고 세상에 여유 있다 여유 있다 그렇게 여유 있을 분이 누가 있겠습니까?
돌에 맞아 죽는 가운데에서도 돌로 치는 자들을 향하여 용서를 구하면서 하나님께로 갑니다.
이게 신앙인이에요, 하늘로 숨통 트는 자들이.

이 이야기를 오늘 사도바울이 디모데에게 해 주고 있는 겁니다.
앞으로 박해가 주어질 것이고, 엄청난 고난이 함께 하게 될 텐데, 너는 숨통 트는 사람으로 살아라.
이 지구 위에서 지상의 삶이 사방으로 막힌다고 질식당하고 답답해하지 말고, 하늘로 숨통을 트고 살아라.
근데 그 숨통을 트는 비결이 어디 있느냐?
'바로 성경 속에 있다' 이런 얘기를 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우리가 살펴보면 13절, 13절은 어저께도 읽었어요.
근데 어저께는 13절의 내용은 우리가 건드리지 못했고, 오늘 보면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한다' 이렇게 얘기가 나옵니다.
여기서 악한 자는 교회 밖의 사람들을 두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교회 밖의 사람들은 다 어차피 죄인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우리는 박해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박해의 마지막 최종목표는, 우리가 이 지상에서 살고 있는 동안 하나님과 우리의 마음과 연결을 끊어내는 것입니다, 배후에서 조정 하는 마귀가 갖고 있는 근본 의도에요.
근데 이 의도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로마시대의 박해 같은 게 없어도, 계속 박해를 받고 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그렇습니까? 우리 삶에서 이 지구 위에서 일어나고 있는 하루하루 삶에서 끊임없이 하나님과 내 마음의 연결을 끊을 만한 위협적인 일들이 발생하고 있으니까.
내 마음의 관심을 하나님으로부터 뺏어가는 대상들이 끊임없이 내 앞에 나타나고 있기 때문

에, 연결이 끊어질 수 있는 박해의 현실이 계속 주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박해의 긴장 속에 사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어떻게 내가 직장에 나가서 돈을 많이 벌 것인가가 목적이 아니고, 어떻게 사장님께 잘 보여서 내가 승진할 것이냐가 목적이 아니라, 어떻게 직장에서 사장님 앞에서 부장님 앞에서 내가 과장으로서, 직장 생활을 하고 있는 동안에 내 마음과 하나님과 연결이 끊어지지 않을까라고 하는 과제를 안고 가는 겁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에요, 어떻게 자식을 기르면서 아내와 남편이 부부로서 살아가면서, 상대방에 의해서 하나님과 내 마음의 연결이 끊어지지 않을 수 있게끔 지속할 수 있을까? 이게 과제인 거예요.
어떻게 좋은 남편이 되고, 어떻게 좋은 아빠가 되고, 좋은 아내가 되고 엄마가 되느냐?
이게 과제가 아니라, 어떻게 자식 앞에서 내가 하나님과의 연결을 끊지 않을 수 있을까, 어떻게 남편과 아내 앞에서 하나님과의 연결을 끊지 않을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이 신앙인인데, 이 박해적인 긴장감을 완전히 해소시켜 버린 자들이 악한 자들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이름은 입으로 부르고 있는데, 마음에서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연결을 포기해버리고, 마음은 돈으로 연결을 해버린다든지, 이 세상에서의 형통으로 연결을 해버린다든지 이 세상에서 이루고 싶은 소원과 꿈과 비전에 연결을 시켜버리는 이런 경우, 그러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경우가 악한 경우이고, 이런 상태에서 말하는 모든 말씀들이 다 속임수라는 겁니다.
아무리 하나님과 예수님의 얘기를 해도 다 속임수이고, 그리고 내가 그렇게 이 박해적 긴장감을 해소시켜 버리고, 하나님과 어떡하든지 어디서든지 끊어지지 않고 연결하려고 하는 이 각오와 긴장감이 해소된 채로, 이 세상에서 돈 많이 벌어 와야지, 사업 잘되게 해야지, 뭐 형통해야지 이러한 식으로 마음이 연결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렇게 잘못 연결된 사람들이 전하는 말씀을 듣는 것이 이게 바로 속는 거라는 얘기에요.
스스로 속고 있으니까, 남에게도 속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만, 마음이 하나님과는 다르게 다른 것을 좋아하는 것, 이게 마음이 연결된 거거든요?
그래 가지고 그 연결 상태에서 말씀을 전하는 것, 다 속임수라는 거예요.
악하다는 얘기를 하는 것은, 이 세상적인 기준과 달라요.

원래 선한 분은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간의 선함이라는 것은, 선하신 하나님과 연결될 때, 하나님의 선하심에 참여

될 때에, 우리에게도 선함이 적용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 인간에게는 선함이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그렇게 악한 자가 되지 않고 끊임없이 하나님과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누구 앞에서든지 하나님과의 연결을 지속해 나갈 수 있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는 얘기입니다.
배우고 확신하는 일에 거하라.
여기서 '배우고'라고 하는 말이 가리키는 내용은, 뭘 배웠느냐? 외할머니 루이스와 어머니 유니게로부터, 이 모계로 이어져 내려오는 구약성경의 내용을 배웠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는 얘기는 무엇입니까?
사도바울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다는 복음 사실을 듣게 됩니다.
이게 바로 확신한 일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다, 그리고 부활하셨다, 그리고 승천하셨다.
본 적은 없습니다, 직접 체험한 게 아닙니다.
그러나 사도바울이 전한 말씀을 듣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일에 거하라는 거예요.

그럼 이 두 가지 일이 어떻게 서로 연관이 되느냐? 15절에 말씀하십니다.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구약성경이에요, 아직까지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고 있는 이 시점까지는, 오늘날과 같은 신약성경 27권이 정해져 있지 않고 있을 때입니다.
신약성경의 지금의 목록이 확정된 것은, 397년 니케아공회에서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성경은 구약성경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구약성경과 그 다음에 확신하는 일로서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이 연결이 됩니다.
어떻게 말씀하는가 하면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사도바울 자신의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바리새인으로 열심을 부리고 살고 있을 때, 구약성경에 정통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납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주님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과 승천의 연쇄사건과 구약이 접목이 됩니다, 알고 있었던 구약성경이.
그래서 구약성경 전체의 의미가 완전히 달라져 버린 거예요,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과 승천 사

건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그 전에 알고 있던 구약성경이 아니고, 십자가 입장에서 바라보는 구약성경, 그 구약성경이 어떤 의미를 갖느냐, 주님에 대한 믿음을 통해 이르는 구원 있지 않습니까?
우리 마음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주님께 연합하게 될 때, 부활하신 주님과 연합하고 승천하신 주님과 연합해서 우리 마음이 이 세상을 빠져 나갑니다, 이게 구원이에요.
이 세상 바다에 빠지지 않고, 마음이 빠져 나가는 게 이게 구원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 세상에 몸으로 살게 되는 삶은,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움직이게 되는 겁니다.
이게 구원받은 상태인데, 구약성경이 어떤 역할을 하냐 하면, 그전에는 그런 걸 몰랐는데 전부 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과 승천 사건을 조명하고 있더라 이겁니다.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가 다.
이게 바로 지혜에 이른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얻는 구원을 조명해 주고 있고, 그리고 그것이 왜 예수님의 사건이 그렇게 일어나야만 됐었는가에 대한 타당성과 당위성을 내 마음속에 깊이깊이 새겨 놓을 수 있도록 드러내 주고, 이게 바로 지혜라는 겁니다.
밝음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에 대해서 밝음이 있게 이해하게 된다는 겁니다.
절대적인 유일성, 절대적인 진리성, 절대적인 타당성,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그렇게 깨달은 지혜로부터 나온 것이 로마서입니다.
율법과 복음, 행위와 믿음, 갈라디아서의 내용이라든지 이런 게 다, 지금 사도바울이 그렇게 알고 있었던 구약성경과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서로 연결이 되면서 구약성경 전체가 다, 그리스도 사건을 향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 나온 이야기들이, 로마서 갈라디아서 같은 것들이고, 바울서신 곳곳에 스며있는 내용들이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드렸잖아요?
성경을 읽는다는 것은 무엇을 뜻하느냐?
성경을 해석한다는 것은 모든 성경 구절에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발견해내는 것입니다.
오늘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성경을 읽으면 그 속에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그 십자가 사건에 대한 믿음과 그로 인한 구원으로 성경이 나를 이끌어 간다는 거예요.
그걸 해석하게 하고, 십자가 사건의 당위성을 다시 한 번 내 마음속에 되새기게 되고.
우리가 아침마다 성경을 읽으면서 말씀을 나누는 이유가 바로 그거입니다.
모든 성경을 통해서 십자가를 보는 거예요.
이렇게 십자가를 모든 성경을 통해서 계속해서 봐 나갈 때, 십자가 사건이 계속 오늘 나의 사

건이 되는 겁니다.
이게 일어나지 않으면, 십자가 사건 자체를 기억하고 있어도 십자가 사건이 살아 있는 될 수가 없습니다, 그냥 기억 속에 묻혀버려요, 역사적인 사건들이 그런 것처럼.
그래서 모든 성경이 이걸 향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포인트가 뭐냐 하면,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어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읽을 때 십자가를 발견하게 되는데, 십자가가 어떤 것이라는 걸 알게 되는 거, 이게 바로 지혜라고 얘기한 거예요.

이렇게 십자가를 알게 되는 일이 뭐냐 하면 숨통트기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16절에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감동으로라고 하는 이 단어가, 헬라어 단어의 원어의 그 뜻을 보면, 하나님의 호흡하심으로라는 뜻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 이 말은, '하나님의 호흡하심으로 되었다' 이 뜻입니다.
하나님의 호흡하심을 통하여 성경이 이루어졌다.
이게 무슨 말인가를 가장 확실하게 우리에게 증거 해주는 사건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이 무서워 가지고 다 벌벌 떨면서 모여서 문을 잠그고 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문도 열리지도 않았는데도 그 안에 들어오십니다.
들어오셔서 하신 게 뭐에요? 요한복음에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렇게 평강이 있으라고 말씀하신 뒤에 하신 게 뭡니까?
후~~ 하고 입김을 부십니다, 제자들을 향해서, 그런 다음에 하신 말씀이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하나님이신 주님께서, 숨을 내쉬시면서 성령을 받으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이 사건 이후에 베드로는 성령을 받고 나서 뭐라고 사람들에게 '너희가 예수를 믿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렇게 되면' 개역한글 성경에는 '유쾌하게 되는 날이 임할 것이다' 개역개정 성경에는 '새롭게 되는 날이 임할 것이다'라고 하는데, 이 유쾌하게 된다, 새롭게 된다라는 이 말이 영어로 Refreshing 이거든요 Refreshing.

Refreshing이라는 말은, 우리가 답답하게 있던 방 안에 있는 공기를 창문을 확~ 열어 가지고 밖의 신선한 공기가 싹~ 들어올 때, 이게 Refreshing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도 헬라어 원어의 뜻을 보면, 하늘을 향해 호흡한다는 뜻입니다.
하늘을 향해!
보세요, 주님이 누구십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에요, 말씀의 총화이십니다.
근데 그 말씀이신 주님께서, 숨을 내쉽니다, 그리고 성령을 받으라고 얘기하십니다.
성경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뭘 하고 있는 겁니까?
우리에게 숨을 내뿜어 내고 계시는 겁니다.
주님! 말씀의 총화이신 주님께서 숨을 내뱉으시면서, 우리를 향하여 숨을 뿜어내시는 것처럼, 성경을 읽을 때 성경말씀이 우리에게 숨을 내뿜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호흡을 내뿜고 있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세상 어디를 가도 하늘을 호흡할 수 있는 구멍이 없습니다.
돈을 많이 벌어도 하늘을 호흡하는 게 아니에요, 대통령이 되고 장관이 되도 하늘을 호흡하는 게 아니에요.
훌륭하고 유명하고 명예스러운 사람이 된다고 하늘을 호흡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오직 주님을 통해서, 주님께로 향하고 있는 말씀을 통해서만 하늘이 호흡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성경에서 하늘의 기운을 내뿜음으로써, 마치 인공호흡 하듯이 하늘이 우리를 인공호흡 시키는 사건이 성경 읽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로 마음의 숨통이 터지는 겁니다.
성경을 읽을 때 우리는 성경에서 뭘 발견합니까?
모든 성경 구절에서 주님의 십자가 사건을 발견하게 됩니다.
아! 성경의 이 부분을 읽다보니까, 왜 주님의 십자가 사건이 내게 일어나야 됐고, 나의 사건이 되어야 되는가 하는 걸 깨닫게 됩니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십자가에 옮겨집니다, 십자가에 옮겨지자마자 부활과 승천하신 주님을 따라 하늘로 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내 마음이 하늘을 호흡하게 되는 거예요 하늘을.
그래서 모든 성경 읽기는 결국은, 하늘을 호흡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착각하는 게 있어요.
성경을 읽다보면, 이 세상에 대해서 내 문제에 대해 답을 얻었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기계발서라든지 뭐 전문분야에 대한 어떤 조언을 주는 그런 책으로 이해할 때가 있습니다.
그거 아닙니다.
이 상황에 대한 답을 주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이 일단은 하나님 자신이 답입니다.
하나님으로 호흡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내가 하나님으로 만족하게 되고 하나님으로 숨통이 트였을 때에, 내가 당면하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이 임하게 되는 것이 순서인 거지, 성경이 우선 문제에 급급해 있고 문제에 매여 있는 나에게, 문제에 대한 답을 주는 게 아니에요.
문제에 대한 답을 주는 게 아니라, 문제 때문에 막혀서 숨을 못 쉬고 있는 나한테 숨통을 터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읽을 때, 어떤 마음으로 읽느냐 하면, 우리 문제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서 성경을 읽을 것이 아니고, 그리고 내 마음에 갖고 있는 전제에 어떤 타당성을 우리가 보충하기 위해서 성경을 읽는 것이 아니고, 정당화하기 위해서 성경을 읽는 것이 아니고, 숨통을 트기 위해서.
하늘로 숨 쉬겠다는 마음으로 읽는 겁니다.
왜냐하면 모든 성경은 주님께로 연결되는데,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을 만나고 첫 번째로 하신 행동이 숨을 내쉬면서 인공호흡을 시켜주셨기 때문입니다.
그 주님의 숨결 속에서는 하늘의 기운이 들어 있는 거예요, 하늘의 기운을 숨을 쉬는 거예요.
그때 하늘로 숨을 쉴 때에, 하늘의 바람이 들어올 때에, 이 세상 바다에 빠지지 않는 거예요.
이 세상에 무슨 일이 있어도, 박해가 있어도, 핍박이 있어도, 원수가 나를 배반해도, 사업이 안 돼도 잘돼도, 잘돼도 빠지고 안 돼도 빠지지 않습니까? 걱정으로 빠지고, 자만으로 빠지고.

그런데 하늘의 호흡을 통해 하늘의 바람이 내 마음에 들어올 때, 하늘로 숨통이 트일 때, 마치 바람으로 꽉~찬 공이 절대로 바다에 빠지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바다를 빠지지 않고 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뭐라 그러냐 하면, 이렇게 하나님의 호흡이 내 안으로 들어옴으로, 하나님이 나를 인공호흡 시켜줌으로 천국으로 숨통이 터질 때,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것도 오해가 돼요.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는 이 얘기를 하니까, 무슨 사서삼경이나 아이들을 유교사상으로 수신하게 하는 무슨 소학, 아니면 고려시대에 같은 의도로 만든 명심보감 같은 이런 책으로 연상할 수 있습니다.
그런 교육을 위한 책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라고 하는 얘기는, 교육을 위한 교과서라는 얘기가 아니고, 텍스트라는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산소가 3분만 공급되지 않으면 뇌세포가 다 죽어버립니다.
우리가 지금, 하늘의 산소가 공급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하늘적인 뇌세포가 죽어버린 거예요.

하늘적 뇌세포가 뭡니까?
이 땅에 살지만 주님처럼 하늘의 뜻이 열매 맺혀지는 말과 행동을 하는 삶에서부터 죽어버린 겁니다.
그러다가, 하늘 공기가 하나님의 호흡이 우리에게 들어옴을 통해서, 성경을 읽고 성경을 통해 십자가에 도달하게 되고, 그럼으로써 우리 마음이 하늘로 도달해서 하늘의 공기로 호흡하고 숨통이 터지면서 하늘 뇌세포가 살아나는 겁니다, 타락과 죄 때문에 죽어버렸던.
하늘 뇌세포가 살아나면서, 우리의 말과 행동이 하늘에 계신 아버지와 호흡이 척척 맞아 들어가는 거예요.
이 얘기를 마지막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한다'
모든 선한 일, 선함은 하나님 밖에 없어요, 선하신 분은.
우리가 선할 수 있는 건, 하나님의 선하심에 참여하는 겁니다.
그럼으로써 이제 이 세상에서 성경을 통하여 십자가를 다시 한 번 확인해요.
이것이 나의 사건이고, 왜 일어나야 됐고, 절대적으로 유일한 진리라는 걸 다시 한 번 확인할 때, 하늘과 숨통이 터지면서 이 땅에서 내가 살아가는 삶의 행동과 말들이, 하나님과 호흡이 척척 맞아들어 가는 거, 이것이 바로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이라 이겁니다.

하나님과 호흡을 맞추는 것, 하나님이 무슨 뜻을 정하시면, 그 뜻이 하나도 예외 없이 다~ 유산됨이 없이, 나를 통해서 입과 손과 발과 몸을 통하여 이 땅에서 열매 맺게 되는 하나님과 호흡이 잘~ 맞는 사람.
어떻게 이런 사람이 됩니까?
날마다 성경을 읽어가면서 성경을 통해서, 십자가를 발견하여 하늘로 숨통이 터질 때, 이런 사람이 된다는 것이지요.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아버지! 돈 잘 벌어서, 자식이 일류대학 들어가서, 아프던 몸이 회복 되어서, 나쁘던 인간관계가 전환되어서 숨통을 트는 게 아니라, 오직 하늘로 숨통을 트는 사람들 되게 하시며, 그러기 위해 성경 읽게 하시고, 그럼으로써 하나님과 호흡이 척척 맞아 들어가는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